



고민이 시작되는 민간부채

1. 역대 최고 가계부채의 실체 파악

- 최근 매크로 이슈에서의 관심사인 물가상승 이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되는 것은 부채와 관련된 관리임.
- 가계부채에서 현재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신용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기타대출임.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소폭 둔화되면서 자산시장으로의 투자를 위한 수요가 확대된 부분에 기인.

2. 연체율로 보는 가계부채 리스크

- 2010년의 금리인상기에서는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조절이 단행되면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경제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 당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체율과 금리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연체 우려는 상대적으로 당시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3. 미국 가계부채의 건전성 점검

- 미국의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21년 1분기 기준 모기지대출은 69%, 자동차론 10% 등으로 구성.
- 대출의 증가속도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율은 오히려 지난해 대비 낮아진 모습. 1분기 종 채무상환 유예 등의 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체율도 낮아지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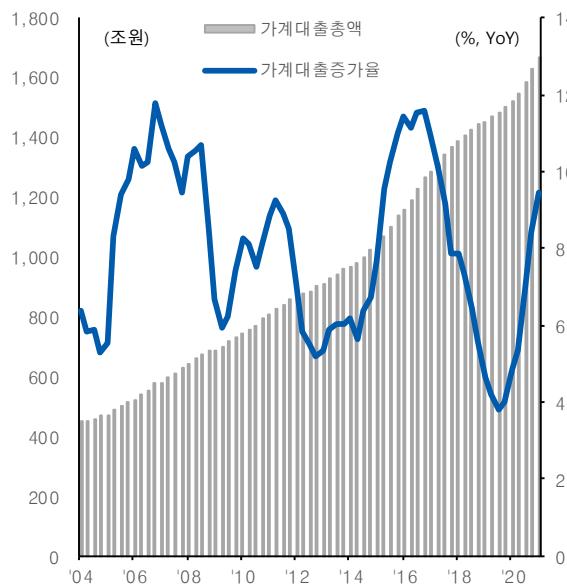
1. 역대 최고 가계부채의 실체 파악

최근 매크로 이슈에서의 관심사인 물가상승 이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되는 것은 부채와 관련된 관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가계의 신용에 대한 관리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1분기 가계신용은 1765.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계대출은 세 차례의 증가폭 확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현재 국면은 다른 두 시점보다 증가율 자체가 높지 않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신규 대출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가 상당히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천명한 만큼 현 수준의 증가속도 이상의 대출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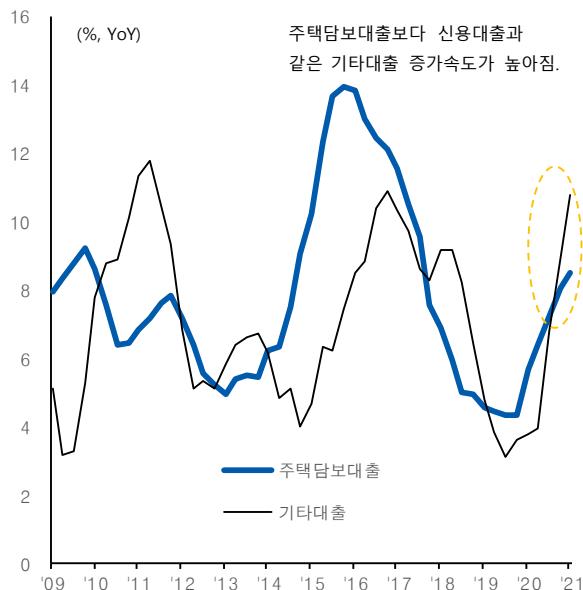
가계부채를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구분하면, 현재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신용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기타대출이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소폭 둔화되면서 자산시장으로의 투자를 위한 수요가 확대된 부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1] 가계부채의 규모는 증가하지만 이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정상적 현상.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아직은 견조.



자료: 한국은행,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상대적으로 기타대출(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넘어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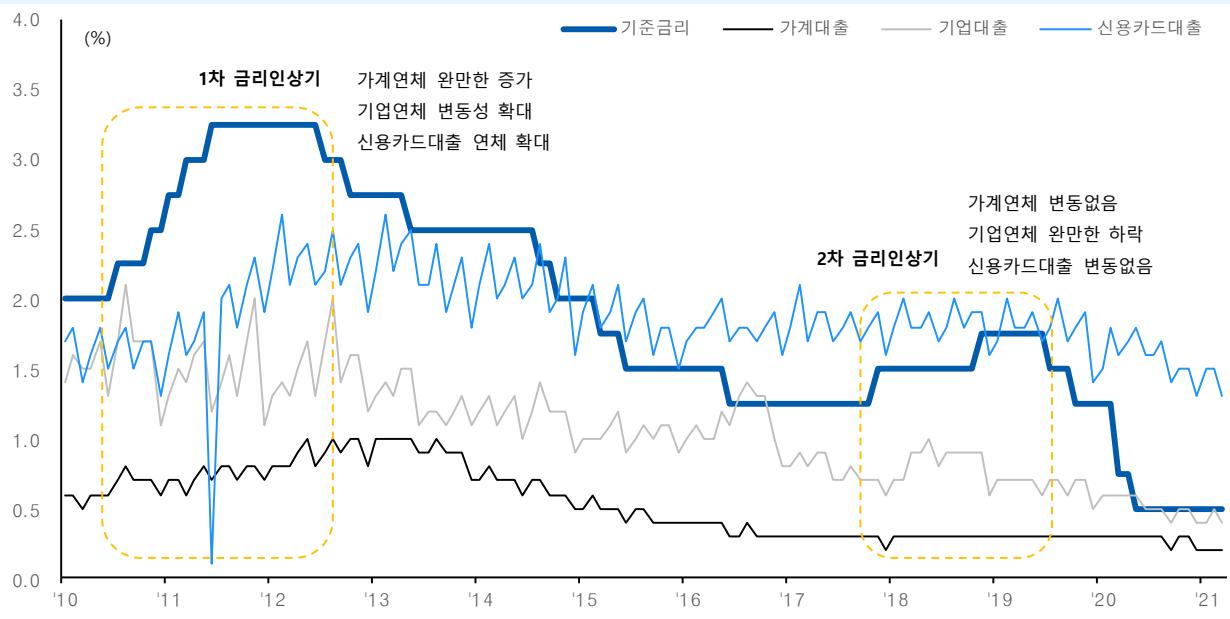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2. 연체율로 보는 가계부채 리스크

불가상승과 테이퍼링 이슈는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금리상승기는 두 차례가 있었는데, 동 기간 가계의 연체율은 1차 금리인상기에는 0.5%에서 1.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차 금리인상기에는 연체율이 0.3%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기업연체율은 2차 금리인상기 당시 오히려 1.0%에서 0.6%까지 연체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석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인 1차 금리인상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는 과정에 직면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서 확고하게 회복되지 못한 경제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연체율이 상승하거나 혹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2차 금리인상기는 반도체 호황 등과 맞물려 경기회복에 이은 경기활황으로 진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건한 경제체력을 바탕으로 연체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1차 금리인상기와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체율 자체가 낮으며 금리수준도 변동이 클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전망된다. 즉 일정 수준의 부담은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변동일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3] 지난 10년간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별로 민간부채의 연체율은 다른 양상. 1차 인상기에는 연체율이 높아졌으나 2차 인상기에는 변동이 크게 없었던 특징. 향후 금리 인상시 1차 인상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자료: 한국은행,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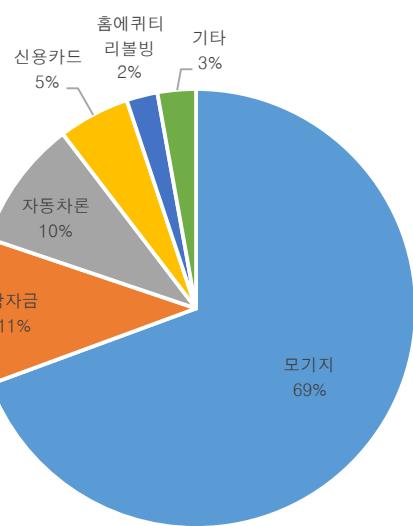
3. 미국 가계부채의 건전성 점검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정부부채와 더불어 동시에 고려해야 할 장기적 리스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것은 경제 구성요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주체의 구매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와 향후 소비경기에 대한 전망 및 내재되어 있는 경제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가계부채에서 모기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1분기 기준 69%이며, 학자금대출 11%, 자동차론 10%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대출의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율은 오히려 지난해 대비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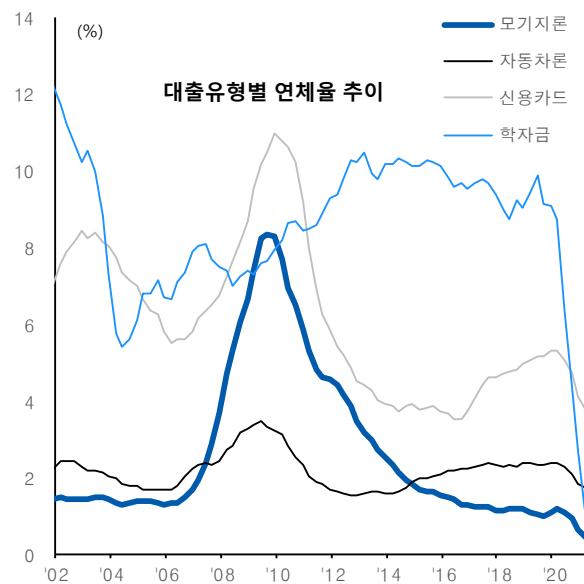
사실 1분기 중 가계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 등의 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체율도 낮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킨 부분이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 역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론과 관련된 연체율이 급증한 경험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가계부채와 관련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5] 미국의 가계부채는 약 69%가 주택담보대출이며, 기타대출이 31%를 차지.



자료: Bloomberg,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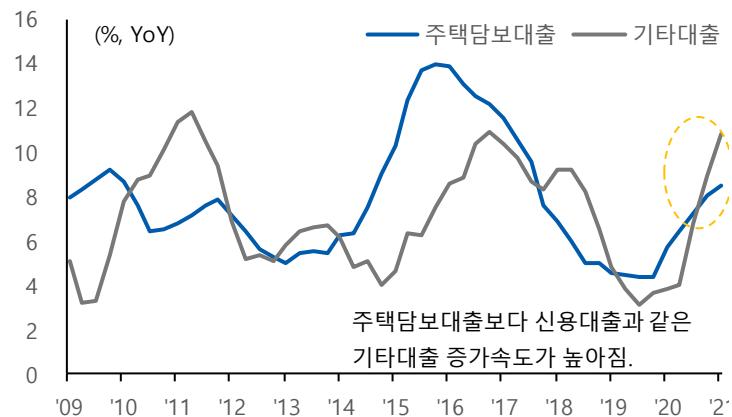
[차트6] 가장 비중이 높은 모기지론도 금년 1분기 채무 상환 유예 등으로 90일이상 연체비율 하락.



자료: Bloomberg,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상대적으로 기타대출(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넘어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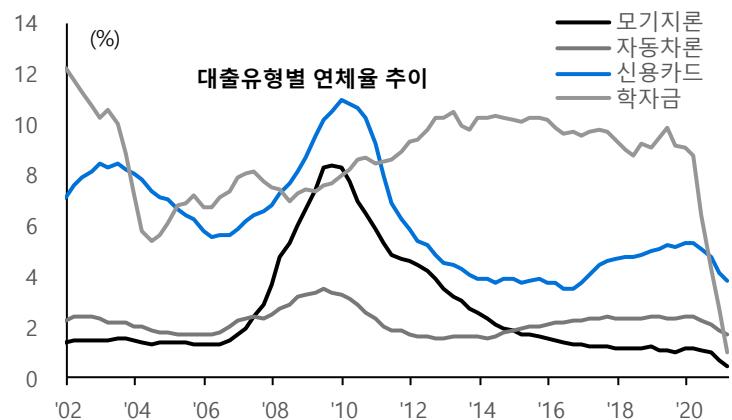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차 인상기에는 연체율이 높아짐. 향후 금리 인상시 1차 인상기와 유사한 추세 가능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가장 비중이 높은 모기지론도 금년 1분기 채무상환 유예 등으로 90일이상 연체비율 하락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